

경북도, 규제혁신 위한 TF 운영... 양질의 일자리 창출

3가지 규제혁신 정책 발표
민·관 규제혁신TF 운영 계획
지방이양 과제도 지속 발굴



경북도청.

경북도는 7일 '중앙과 지방 간 상생적 규제혁신'을 위해 ▲덩어리 중앙 규제 해소 ▲현장규제 해소 ▲규제혁신 역량강화 등 3가지 규제혁신 정책을 펴겠다고 발표했다.

'덩어리 중앙규제 해소'를 위해선 먼저 기업의 지방이전이 촉진될 수 있도록 주차장·공원·수도과 같은 부대 시설 및 판매시설 설치면적 제한과 같은 산업단지 관련 규제를 발굴·개선하기로 했다. 또 건축물 증설 때 용적률·건폐율 제한, 업무관리자 의무고용 등 공장증설 관련 규제 발굴·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농수산물 유통시설 개선과 정비명령 권한 등 지방이양 과제도 지속 발굴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개선이 시급하고 복잡한 과제는 총리실-행안부-부처 관계자를 현장에 초청하거나 지역현장토론회를 열어 해소할 방침이다.

도는 이같은 규제혁신 과제 발굴·개선에 대한 업무지원 및 동력을 마련하고자 기획조정실장을 팀장으로 한 지방연구원,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 규제혁신 TF를 운영할 계획이

다. TF는 지방과 중앙 간 상생적 협력으로 규제혁신을 지방에 안착시키고, 지방의 기업유치와 기업활동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활동을 하게 된다. 도는 또 '맞춤형 현장규제 해소'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먼저 도로점용료의 과도한 과징, 공장지가 산정

때 불합리한 기준을 적용하는 등의 규제를 발굴해 개선할 계획이다. 또 인허가 신청에서 승인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는 등 공무원 소극행정에 의한 행태규제도 발굴할 예정이다.

황명석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지역기업의 경제활동 지원과 같은 성과 중심으로 시군 평가 지표를 개선하고,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로 적극적인 규제혁신을 유도할 계획"이라며 "10월에는 지역현장에서 국무조정실 및 전문가와 함께 간담회를 열고 규제혁신 이행상황을 점검해 실질적인 규제혁신의 성과를 내겠다"고 밝혔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정부가 만든 법령 한 줄, 규제 하나가 기업들에게는 생사의 문제가 된다"며 "돈으로 만드는 억지 일자리가 아닌 규제혁신이 만들어 내는 양질의 일자리로 민생과 경제를 살려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경북=김상복 기자 ksb8100@metroseoul.co.kr

지역 이모저모

경남도 "몰랐던 조상 땅 찾아보세요"

경상남도는 추석 명절을 맞아 조상 명의로 남아있는 땅을 확인할 수 있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이용해 볼 것을 권하고 있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재산관리의 소홀이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재산 상속이 제대로 되지 않은 토지를 찾아 후손들에게 알려 도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주는 적극적인 토지행정 서비스이다.

이 서비스는 1993년 경남도에서 최초로 추진하다가 2001년에 전국으로 확산되었으며, 경남도내에서는 올해 2만581명이 신청하여 8,382명이 3만4,694필지(176,068,193㎡)의 토지를 찾았다.

/경남=장병호 기자

국내 최대 반려동물 테마파크 부산 기장군에 짓는다

면적 59만5000㎡ 조성
사업비 약 350억 예상

부산시가 기장군 철마면 구철리 일원 국·공유지 등을 활용하여 민선8기 공약사업인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부산의 반려동물 가구는 2021년 10월 기준 18만 4000가구인 데 반해 반려동물 테마파크는 전국 6개소로 거의 전무한 실정이라서 시민들로부터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 요구가 끊임 없이 제기되어 왔다. 그동안 반려동물 공원 조성의 필요성은 절실하였으나 적합한 장소를 찾지 못해 수년간 난항을 거듭해 왔으나, 최근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사업대상지를 선정하게 됐다.

이번에 조성될 반려동물 테마파크 면적은 전체 59만5000㎡(국공유지 52만4000㎡ 사유지 7만1000㎡)로, 이는 부산 시민공원의 1.25배인 국내 최대 규모의 면적이다. 대부분 국·공유지를 활용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약 350억 원이 예상된다.

주요 시설로는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야외훈련장, 동물놀이터, 동물캠핑장, 동물산책로, 동물문화센터 등으로, 다양한 반려동물 관련 편의·교육훈련·문화시설이 들어선다. 특히 개발제한구역과 상수원보호구역에 편입되어 그동안 소외됐던 지역주민과의 상생을 위하여 지역산품 장터, 마을마당 등 지역주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주민제안 시설도 함께 조성할 예정이다.

부산시는 편의 문화시설 조성 이외에도 반려동물 서비스산업 육성에 힘을 쏟는다.

시는 동명대·신라대와 협력하여 동물병원을 건립하고, 고부가가치 펫푸드 및 고기능성 사료 개발, 반려동물 영양 관리 인력양성 고도화 등을 별도로 추진하여 반려동물 관련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이는 개발제한구역 내 반려동물 관련 산업을 발굴 유치하여 지역주민들의 소득증대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부산=장병호 기자 metrobusan1@

부산 14개 공공기관, 하반기 188명 채용

지난해부터 통합채용으로 변경

부산교통공사, 부산도시공사 등 부산시 산하 14개 공공기관의 올 하반기 채용 인원이 총 188명으로 확정됐다. 부산시는 7일 하반기 공공기관 채용과 관련, 총 188명을 채용하고 통합 필기시험은 오는 10월 22일, 원서접수는 이달 21일부터 28일까지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시는 공공기관별로 산발적으로 치르던 채용시험을 지난해부터 통합채용으로 변경했고, 매년 상·하반기로 나눠 채용한다.

기관별 채용 예정인원을 보면 ▲부산교통공사 65명 ▲부산시설공단 37명 ▲부산환경공단 25명 ▲부산지방공단스포원 17명 ▲부산정보산업진

흥원 16명 ▲부산도시공사 4명 ▲부산테크노파크 5명 ▲영화의전당 5명 ▲부산문화회관 4명 ▲부산관광공사 3명 ▲부산신용보증재단 3명 ▲부산경제진흥원 2명 ▲부산연구원 1명 ▲부산디자인진흥원 1명 등이다.

원서접수는 부산시 공공기관 통합 채용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며, 2개 이상 기관에 신청하거나 한 기관에 중복으로 신청할 수 없다.

기관별 채용 직렬과 시험과목 등 자세한 내용은 7일 오후 1시부터 통합채용 누리집과 채용 공공기관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필기시험은 장소는 통합채용 누리집 등을 통해 별도로 공고할 예정이다.

/부산=이도식 기자 metrobusan@



무장에 나눔길.

/경남 고성군

고성군 남산공원에 무장애 나눔길 조성

경남 고성군은 많은 군민이 애용하는 남산공원 일원에 보행 약자층을 배려한 무장애 나눔길 조성사업을 완료했다.

지난 3월 착공한 무장애 나눔길은 어린이, 임산부, 노약자, 장애인 등 보행 약자층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숲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사무소부터 작은 쉼터까지 0.8km 구간에 경사도 8% 이하로 완만하게 조성된 천연재 데크길이다.

또 이용객들의 편의 제공을 위해 데크길 사이사이에 벤치 10개를 설치하고, 고성읍을 관광할 수 있는 전망데크 광장 및 포토존을 설치해 군민들에게 새로운 볼거리와 편안한 휴식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조성했다.

/고성(경남)=이도식 기자

영양군, '고향사랑기부제 도입' 홍보 박차

적극적인 관심·참여 유도

영양군(군수 오도창)은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도입을 위한 홍보에 적극 나섰다.

군은 지난 달 「2022 영양고추 H.O.T Festival」 행사에서 자체 제작한 포스터를 활용하여 행사장 방문객들에게 제도 시행을 알린 바 있다.

또한 관내 주요 관광지와 마을회관

등에 홍보 포스터를 비치하고, 실외 현수막을 설치하는 등 추석 연휴 기간 동안 귀향객과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고향사랑기부제 홍보에 나섰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출향민과 주민들에게 고향사랑기부제의 시행취지를 알리고,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홍보에 최선을 다해달라"라고 당부했다.

/영양(경북)=김태우 기자 ktu3987@

광주공공배달앱 이용 소상공인·시민 지원

배달수수료 지원 확대 등 진행

광주광역시시는 추석을 맞아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에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광주공공배달앱(위메프)을 이용하는 소상공인 지원과 시민들을 위한 할인혜택을 대폭 확대한다.

광주공공배달앱은 민간배달앱의 과도한 수수료와 광고비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부담 완화를 위해 2021년 7월 출시한 민생플랫폼이다.

광주시는 최근 물가상승 등으로 위축된 소비를 촉진하고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를 위해 ▲가맹점주 배달수수료 지원 확대 ▲상생카드 결제 시 페이백 3% 추가 적립 행사 ▲신규가맹점 대상 마케팅 지원 등 지원시책을 마련했다.

먼저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해 가

맹점주 배달수수료 지원 한도를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한다. 가맹점주 배달수수료 지원은 광주공공배달앱에서 발생한 배달주문 1건당 1000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연말까지 한도를 확대해 지원한다.

'고유가·고물가 민생대책'의 하나로 9월부터 12월까지 상생카드 결제 시 3%포인트를 추가로 적립해준다.

현재 광주공공배달앱으로 주문 시 1%포인트가 적립되는데, 여기에 상생카드 결제 시 3%를 추가 적립해줘 상생카드 주문 시 총 4%포인트 적립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또 9월부터 공공배달앱에 신규 입점한 가맹점을 대상으로 배달·픽업 주문 시 5000원을 할인 받을 수 있는 할인 쿠폰을 발행한다.

/광주=양수영 기자 ysn6313@

영암군 '비대면 걷기 챌린지' 진행

영암군은 내달 9월 19일부터 11월까지 총 3회에 걸쳐 걷기챌린지를 진행한다.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비대면 신체활동 걷기사업으로 모바일 워크온 앱을 통하여 커뮤니티에 가입 후 챌린지에 참여하면 된다.

지난 4~6월 진행했던 상반기 걷기챌린지는 영암군민 약 1400여명이 참여해 이중 400여명이 목표를 달성했다.

이번 진행되는 하반기 걷기챌린지는 65세 미만과 65세 이상 커뮤니티를 별도로 나누어 진행하여 65세 이상 어르신 걷기사업을 따로 관리할 예정이다.

9월 걷기챌린지는 65세 미만 참여자는 하루 1만1천보, 65세 이상 참여자는 하루 8천보로 제한되며 챌린지 달성 시 매월 1만원 상당 상품을 지급할 예정이다.

/영암(전남)=김용학 기자 jijacecom@